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갑오년 새 아침에 진리의 법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의 법입니까?

일출동산대지명(日出東山大地明)이라, 새해의 장엄한 빛이 온 지구촌을 밝게 비추는 도다.

황금빛의 상서로운 기운이 마을마다 감도니 화합의 목소리 집집마다 들리겠습니다. 나무가 꽃에 짐작하면 열매를 맺기 어렵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만 비로소 더 큰 바다에 들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미래 앞에, 누적된 과거의 폐습, 반목과 갈등은 지난해에 잊혀 보내고 국가와 지구촌의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염원합시다.

새 아침, 새 마당에 다 함께 나섭시다. 각자의 자기의 분을 따라 수행인은 수도에 전념하고 정치인은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헌신하며 농부는 생산에, 근로자는 일터에서, 학생은 배움에 매진할 때 태평이 울리는 일등국가 일등국민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사해오호(四海五湖)의 모든 형제들이여, 온 세계가 한 집안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돌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찌 남북과 동서가 있었습니까?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니, 생명을 원하므로 값으면 원한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인과입니다. 원한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키워내지만 막으면 잘 때까기 다루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한 게 없지만 딱딱하고 강한 것에 떨어질 때는 물보다 더 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낮은 곳에 처 하는 그 성품이기에 삼라만상을 윤택케 하니 갑오년 한 해엔 물과 같은 덕행으로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서로 다루는 이웃이 없도록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통일과 세계평화를 앞당기시다.

인빈(人貧)함은 지단(智短)이요 마수(馬瘦)하면 모장(毛長)이로다. 사람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고, 말이 야위면 털이 길다고 하였습니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기를 염원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참나 가운데 큰 지혜가 있고 참나 가운데 큰 복과 큰 덕이 갖추어져 있으니,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립니다.

진실과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갑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은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화평과 중도의 가르침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원호 스님과 마하트라 간디, 그리고 만델라 등 인류의 지성들이 이 길을 이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온 몸으로 보여준 지혜와 자비의 울림은 우리를 가슴 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있음에도 경제불황과 양극화, 끊임없는 분쟁과 자연재해 등 지구적인 고통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도 바다영토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남북한은 정전 60년이 지나도록 평화체제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화해와 상생의 물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자본가와 노동자 등으로 편을 가르기라도 한 것처럼, 대립하고 갈등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과 화해의 기운이 절실합니다. 옛 말씀에 바로 셋이라도 서로 모여서 의논하

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했듯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종단의 주인인 사부대중이 서로 마음을 모아 지혜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햇볕과 이웃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없으며,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 울음 속에도 빈틈이 있고, 상대방의 그림 속에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손을 잡으면 못 이룰 행복이 무엇이며, 못 이룰 평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과도한 욕심과 잘못된 선명에서 벗어나, 진실의 눈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 스스로를 살려야 합니다.

진실과 화해의 마음이면 기로에 선 민주주의는 활로를 찾을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써 빛을 발하는 협동과 공존의 대안경계가 열릴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기에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으며, 남이 남이 아니기에 나눌 수 있습니다. 비움과 나눔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동체대비 배려로 갈등 치유하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옛 조사 스님의 말씀 중에 '만약 한 번이라도 배에 사무치는 추위를 견디고서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년 아침을 맞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다가올 아늑하고 따사로운 봄빛이 더욱 많은 생명을 움트게 할 약속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품고 다가 온 새해에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덕화가 증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옛 것을 마무리하고 새 것을 맞이하는 신년벽두는 희망과 행복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만의 행복, 나만의 희망만을 집착하고 욕심낸다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타인과 나누고자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마음속에서만 세계일화(世界一花)의 한 송이 꽃이 만개하고 국민행복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옆 자리의 사람을 경쟁과 대립의 상대가 아닌 함께

호호하고 발맞추어 나갈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불국토로 화현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소외되고 지친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자칫 낙오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요, 마음을 나누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불자(佛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인(勿施於人)이라!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처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남을 나와 같이 여기는 동체대비의 배려를 통해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상생과 화합으로 전환시키는 무한한 나눔을 온 누리에 채울 수 있습니다. 활달하고 푸른 기운을 갖춘 진취적인 청마의 해를 맞아 부강한 나라와 국민 행복 시대를 염원하며 국민과 불자 모두가 근본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를 공경하는 새 해 되길 바랍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 첫 아침을 여는 해는 희망과 평화 그리고 행복의 빛으로 산하를 비춥니다. 밝은 빛사 속으로 상서로운 군마(群馬)가 힘차게 달려오며 희망과 행복의 장엄한 서곡을 연주하는 듯합니다. 일체중생이 밝은 기운을 받아 환희의 공양을 베풀니, 삼라만상이 그대로 불보살의 구현입니다.

이 찬란한 새 아침, 우리는 올 한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올 한해는 일체를 공경하는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높아지고, 상대를 높이면 세상이 평화로워 집니다. 모든 갈등은 나를 높이는 데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나에게 대한 집착으로 오는 것이니, 올 한해는 나를 낮추고 일체를 공경하는 지혜로 살아갑시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집멸도의 성스러운 진리로 법계의 근원을 파악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팔만사천의 법문과 십조구만오십팔자의 장광설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법문과 장광설도 결국은 나 한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발현하고 귀착되는 것이니 나를 다스리는 것이 우주 법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의 최상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니, 상불경 보살의 다함없는 수행이 그 표본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아집과 독선 그리고 편견의 파도가 한 순간도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재해와 전쟁의 공포는 물론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국가 민족 간의 갈등이 들끓고 있으니, 어느 땅에 평화의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었습니까?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상불경 보살로 살아갑시다.

다툼이 없으면 평화롭고 차별이 없으면 평등합니다. 일체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천지의 조화가 드러나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상생의 복락이 가득합니다.

갑오년 새해를 시작하며, 천지가 원융하고 일체가 원만한 여정도의 문을 활짝 여는 대지혜가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긍정의 힘이 수행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갑오년 새해, 불자(진언행자) 여러분 모두에게 복과 지혜 가득하시길 서원합니다. 갑오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긍정의 희망과 의지의 서원으로 가득합니다. 더불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미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저마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가버리지 않습니다.

불자 여러분, 올 한해, '긍정'이라는 희망으로 나의 모든 일을 받아들여 자신을 키우는 수행의 주인이 되어봅시다.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은 나와 인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자로서 좋고 나쁜 일을 분별하지 않고, 일체를 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여 새기는 일은 인과의 이치를 밝히는 지혜,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실천이 불자로서 지혜를 밝히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수행자의 참모습으로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불자(진언행자) 여러분, 지난 한해 모두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해도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나 올해는 돌이 아닌 하나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과의 이치를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의 힘은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나의 그릇을 반듯하게 키우는 지혜와 복력이 됩니다. 나아가 부정과 갈등을 극복하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행 또한 긍정의 힘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실천이 되어 이웃사회에 밝고 희망찬 웃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의 힘입니다. 웃음 넘치는 사회의 씨앗입니다.

불자(진언행자) 여러분, 수행의 씨앗을 키워 나누는 힘차고 멋진 한해의 주인이 되고, 복과 지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서원합니다.



근본자리로 귀일하길 축원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갑오년 새해가 밝으니 곳곳에 희망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눈 덮인 산에 이는 활연한 바람과 납월(臘月)의 모진 추위는 아직 결기를 부리지만 금풍에 씻기던 암자의 매화가 가지는 벌써 봄빛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 조사 스님의 말씀에 '춘색무고하 화지자장단(春色無高下 花枝自長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봄빛은 높고 낮은 것이 없이 두루 비추건만, 꽃가지는 스스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란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평등한 봄빛에도 길고 짧은 꽃가지가 생겨나듯이 온갖 번뇌에 스스로 묶여 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천만 불자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지혜와 덕성을 고루 갖춘 자기의 본래 모습이 있음을 자각하고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요,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 곁에 다가 올 것입니다.

동지선달 추위를 뚫고 납매(臘梅)가 먼저 갑오년의 꽃소식을 전합니다. 금년 한 해는 활발발(活潑潑)한 청마의 기운처럼 천만 불자 모두가 오고 감이 없는 기용(機用)속에 평등과 차별을 뛰어넘어 근본의 자리로 귀일(歸一)하시기를 축원 드리며, 나라가 부강하고 문화가 융성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회와 발원으로 새해 맞으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大慈大悲恒相續
大喜大捨無間斷
爲有緣者導妙法
晝夜修心常精進

욕망을 쫓아 업이 된 세월, 참회로 비우고

인간 몸 받은 귀한 인연 기뻐하며 원을 세우라.

꿈같은 세월에 속지 말고 명명백백 분명히 이 순간을 영원으로 살려라. 새사람이 되어 새해를 맞는 이들이여. 새아침의 기쁨 함께 나누니 누리에 복이 가득하여라. 걱정 근심 번뇌량이 본래 있었더라. 언제나 밝고 깨끗한 본성의 빛을 바로 보아라.

국론화합 원년으로 만들자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들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증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우리는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무연대비 동체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쪽을 해지면 저쪽은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습니다. 남을 해지면 내가 죽고, 남을 도우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진리입니다.

일체만물은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어서, 하나도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깊은 진리는 만물은 원래부터 남남이 아니라 한 뿌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자비의 법등이 밝혀져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자비와 보살행의 원력이 국론화합과 경제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기를 지심으로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